

조일사 : 17-217 호 2017. 10. 24.

수 신 : 한양대학교 총장 귀하

참 조 : 학생처장

제 목 : '제3회 대학생 新조선통신사 - 통신사의 길을 따라서' 참가학생 추천 요청의 건

귀 대학교의 발전과 귀하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조선일보사는 외교부(주일한국대사관)와 함께 [제3회 대학생 新조선통신사 - 통신사의 길을 따라서]를 올해 12월 18일부터 27일까지 개최코자 합니다.

조선일보사는 한일국교정상화 50주년을 기념하여 2015년 10월 11일 서울 경복궁을 출발, 11월 1일 도쿄 도청광장까지 1,900km를 자전거로 달리며 우정과 화합의 메시지를 전달한 '두 바퀴로 달리는 신(新) 조선통신사' 행사를 성황리에 개최한 바 있으며 그 뜨거운 관심을 이어가기 위해 후속으로 2016년 1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 [대학생 新조선통신사] 행사를 치렀습니다.

주지하시는 대로 조선통신사는 임진왜란 후 두 나라의 불신과 반목이 가장 극에 달했던 때 친선과 평화를 상징했던 공식 외교 사절이었습니다. 한일 양국은 조선통신사 기록물의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를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을 만큼 조선통신사는 한일 교류 역사의 상징이라 할 수 있습니다. 대학생과 함께 하는 新조선통신사는 경색일로를 걷고 있는 韓日 관계 속에서 과거 선조들의 평화의 메시지를 되새기면서 바람직한 양국의 관계를 모색하고자 기획되었습니다.

이번 행사에서는 부산에서 출발, 일본 쓰시마-시모노세키-히로시마-후쿠야마-오사카-교토-나고야-시즈오카-하코네-도쿄 등지의 조선통신사 유적지를 인솔교수와 함께 답사하면서 韓日 양국이 지향해나가야 할 '평화와 선린우호'의 정신을 되새기고자 합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귀 대학교에서 이 행사에 참가할 적합한 학생 1명을 추천해주실 것을 요청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행사명 : '제3회 대학생 新조선통신사-통신사의 길을 따라서'
2. 행사기간 : 2017년 12월 18일(월)~ 27일(수), 9박 10일간
3. 탐방단 구성 : 대학생 25명 및 취재-강사-여행지원팀 등 30명 규모
4. 탐방코스 : 부산 출발(선박편)-대마도(선박편)-시모노세키(버스 및 기차편 이동)-히로시마-후쿠야마-오사카-나고야-하코네-도쿄(항공편)-서울 도착
5. 초청대상학교 : 조선일보-QS 대학평가 상위 25위 학교가 추천한 학생 각 1명

6. 추천대상 : 韓日관계와 역사에 관심 있는 재학생 (일본어 구사 가능한 재학생을 우선으로 추천, 전공불문)
 7. 참가비 : 무료
 8. 추천서 및 참가신청서 보낼 곳 : hsuki@chosun.com (추천서 양식 참고)
 9. 추천마감 : **2017년 11월 14일(화) 오후 5시**
 10. 사전교육 : 참여 학생은 반드시 조선일보사에서 진행하는 사전교육에 참석해야 합니다
(사전교육 일정은 추후 재공지 예정)
 11. 문의 : 조선일보 문화사업단 (02)724-6318
- 첨부 : 참가학생추천서 및 학생 참가신청서
- ※ 본 행사는 관광이 단순 관광이 아니고 대한민국과 각 학교를 대표하여 선발되어 참가하는 것입니다. 나라와 학교의 명예가 실추되지 않도록 선발된 학생에게 지나친 음주를 삼가는 등의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참고) 행사 주요 일정 및 방문

- 1일차 : 부산~대마도(선편) / 한국전망대, 원통사, 수선사 등 유적지 방문
 - 2일차 : 대마도~후쿠오카(선편) / 만송원 등 방문
 - 3일차 : 후쿠오카~시모노세키~히로시마 / 아카마(赤間)신궁, 히로시마평화공원, 시모카마가리
 - 4일차 : 히로시마~후쿠야마~오사카 / 토모노우라 복선사, 전문가 강연
 - 5일차 : 오사카~교토~오사카 / 죽림사, 귀무덤, 상국사
 - 6일차 : 오사카~오미하치만~시가 / 오사카성, 오미하치만(조선인가도), 종안사
 - 7일차 : 시가~아이치~시즈오카 / 아메노모리호슈기념관, 비사이(尾西) 역사민속자료관
 - 8일차 : 시즈오카~하코네~도쿄 / 보태사, 슌푸성, 청견사, 하코네 세키쇼
 - 9일차 : 에도성, 강연 및 발표 프로그램
 - 10일차 : 귀국 / 도쿄~인천(항공편)
- (일본 국내이동은 신칸센과 전용버스편으로 하며, 일정은 현지사정 등으로 일부 변경될 수 있음)



조 선 일 보 사 사 장 방 상 훈

